

# 美 무역공세에, 韓 기업들 '비상' 직업교육연구원 '관세119' 가동

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박차 두 달 새 상담문의 3022건 접수 기업 10곳 중 7곳 '관세 집중' 관세율·부과 시기 등 혼선 커져 강경성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부과 발언에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범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1600-7119)가 설치된 이후 두 달째인 4월18일까지 3022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주 지역 애로 상담 67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4월 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 상담 문의 10건 중 약 7건(68%)은 관세에 집중됐다. 이어 대체사업 및 인증·규격 문의(21%),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7%), 현지생산 투자진출(4%) 등이었다. 관세 상담 세부내역을 보면, 관세율(81%), 원산지규정(8%), 부과시기(7%), 과세가격(4%)순으로 많았고, 기업뿐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 발표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관세사들의 질문도 300건을 웃돌았다.

'관세대응 119'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전문인력과 관세사로 구성된 간단한 질문부터 심도 있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영국동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설명회 현장 모습. /코트라

는 무역투자 상담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유무선 모두 가능하고, 코트라 홈페이지 첫 창에서 특별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내 최초로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 모든 품목 관세율을 기업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2000건에 이른다.

코트라는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된 총 29회의 설명회에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 327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정보 전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코트라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17일 열린 설명회에는 국내의 수출기업 등 관계자 62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9차례 개최하는 등 지방소재 기업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상담체계를 고도화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멕시코, 중국 등 글로벌 지역 전문가 281명이 대미 수출을 위한 현지 원산지 판정, HS CODE 검토 등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한편, 2000여개 이상 대미 수출 애로기업을 바우처를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정책 관련 세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시장 개척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2020년 이후 5년연속 쾌거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차제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 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

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트럼프발 불확실성 커, 조속 타결 목표"

산업부, 한-태국 EPA 5차 협상 개시 상품 등 13개 분야 시장개방 중점 논의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유망 시장인 태국과의 이번 협상을 조속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태국 EPA 공식협상에는 우리측 동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 신설

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20개소 선정 '직무교육 OTT 구독서비스 만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batches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웨бина, 명사 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폴리텍, 디지털 교육혁신 전진기지 구축

직업교육연구원 서울로 이전 '직업교육 연구기능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이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임춘건 기획이사, 신동재 운영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연구원 이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확대 이전을 통해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산업 구조에 맞는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미래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해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넓혀갈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직업교육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혁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며 "직업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경.

심헌 직업교육연구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폴리텍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비전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커피캡슐 리사이클에 전국 우체국망 활용"

환경부-네스프레소 업무협약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에 점유율 1위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커피캡슐 회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

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는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에코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된다.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